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침착한 응급처치로 민원인 살려

✎ 이건용 기자 | ㉠ 승인 2026.02.11 16:26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캡처

농어촌공사공주시사 직원이 응급처치로 민원인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공주시사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오후 2시경 농지은행 업무(농지임대차) 상담을 위해 지사를 찾은 60대 민원인이 사무실에서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졌다.

A(63) 씨가 상담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직원들은 지체없이 민원인을 바닥에 누이고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공주시사 직원들은 10분가량 흉부압박 등 기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팔다리를 주무르는 등의 응급조치를 이어나갔다.

A 씨는 천안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병원 치료 후 지난 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조치에 참여한 임 모 계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교육받은 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비상상황 시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공주시사는 앞으로도 직원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별 비상대응체계 점검을 통해 유사 상황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 都 日 報

joongdo.co.kr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민원상담 중 쓰러진 농민 생명 살렸다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등 체계적 대응... 60대 농민 건강 되찾아

고중선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6-02-10 15:50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직원들이 사무실을 방문한 민원인의 심정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에 따르면, 1월 21일 지사를 방문한 민원인이 상담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경 농지은행 업무인 농지임대차 상담을 위해 공주시사 사무실을 찾은 공주시 유구읍 거주 A씨(63)는 상담 중 갑자기 심정지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즉시 응급상황으로 판단하고 A씨를 사무실 바닥에 눕힌 뒤 공주시 119안전센터에 신고해 구조 요청을 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직원들은 약 10분가량 흉부압박 등 기초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며, 팔다리를 주무르는 등 응급조치를 이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시 119안전센터는 현장에 도착한 직후 응급처치를 이어받아 실시한 뒤 A씨를 천안 소재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지난주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조치에 참여한 임모 계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교육받은 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더 많은 직원이 비상상황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앞으로도 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별 비상대응체계 점검을 통해 유사 상황에 대한 대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주=고중선 기자 houg@

민원상담 중 쓰러진 농민, 공주시사 직원의 심폐소생술로 다시 숨 쉬다

응급상황에서 증명된 현장안전대응 역량

2026-02-10 한기춘 기자

[일간투데이 한기춘 기자] 지난 1월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직원들이 지사를 방문한 한 민원인이 사무실에서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지자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119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침착한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경 농지은행 업무(농지임대차)를 상담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사무실을 방문한 공주시 유구읍에 거주하는 A씨(63세)는 상담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함께 있던 직원들은 곧바로 응급상황으로 판단해 해당 민원인을 사무실 바닥에 누이고 공주시 119안전센터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도착을 요청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공주시사 직원들은 곧바로 약 10분가량을 흉부압박 등 기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팔다리를 주무르는 등 계속해서 응급조치를 이어나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시 119안전센터는 도착 즉시 응급처치를 이어받아 A씨를 천안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A씨는 다행스럽게도 병원 치료를 받고 지난 주에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흉부압박 등 응급조치에 참여한 임모 계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교육받은 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더 많은 직원이 이러한 비상상황시에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앞으로도 직원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별 비상대응체계 점검을 통해 유사상황에 대한 대비를 더욱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상담 중 쓰러진 농민,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직원의 심폐소생술로 다시 숨췄다

○ 오정환기자 | 승인 2026.02.10 16:01

전남매일

| 응급상황에서 증명된 현장안전대응 역량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지난달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직원들이 지사를 방문한 한 민원인이 사무실에서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지자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119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침착한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경 농지은행 업무(농지임대차)를 상담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사무실을 방문한 공주시 유구읍에 거주하는 A씨(63세)는 상담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함께 있던 직원들은 곧바로 응급상황으로 판단해 해당 민원인을 사무실 바닥에 누이고 공주시 119안전센터에 즉시 신고해 신속한 도착을 요청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공주시사 직원들은 곧바로 약 10분가량을 흉부압박 등 기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팔다리를 주무르는 등 계속해서 응급조치를 이어나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시 119안전센터는 도착 즉시 응급처치를 이어받아 A씨를 천안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A씨는 다행스럽게도 병원 치료를 받고 지난 주에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흉부압박 등 응급조치에 참여한 임모 계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교육받은 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더 많은 직원이 이러한 비상상황시에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앞으로도 직원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별 비상대응체계 점검을 통해 유사상황에 대한 대비를 더욱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정환 기자